

평키한 동남아 여행기

김이재. 『평키 동남아: 사랑과 행복의 상징 두리안을 찾아
떠나는 힐링 로드』. 시공사. 2012.

김 형 준*

I.

김이재 선생이 최근 출간한 동남아 관련 저술의 제목은 ‘평키 동남아’이다.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의미가 선뜻 와 닿지 않았다. ‘평키’, 상당히 오래전에 들어보았던 이 말에 대해 생각하자 머리 양쪽 편을 밀어버리고 닭의 벋처럼 가운데 부분을 바짝 세워 알록달록한 색으로 염색하고 다니던 십수 년 전 호주의 젊은이가 떠올랐다. ‘평키’에 대한 이런 기억으로 인해 ‘동남아’와 연결된 이 말에서 어색함을 느꼈고 결국 사전을 찾아보게 되었다. 사전에서는 ‘핑크 스타일(punk style)’을 ‘1970년대 후반 런던 하층 계급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한 복장과 헤어스타일’로서 ‘너덜너덜한 티셔츠에 술을 단 재킷을 입거나 머리털을 곧추세운다’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p’가 아닌 ‘f’로 시작하는 펑크(funk)도 있었는데, 펑크 음악은 멜로디나 하모니가 아닌 드럼이나 전자악기의 강한 리듬과 비트를 앞세운 음악이라 정의되어 있었다.

음악이나 패션에 조예가 깊지 않은 평자로서는 사전적 설명만으

*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로 ‘핑크’의 뜻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조금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핑크’는 주류문화에 대한 반항이나 개인적 표현의 극단적 자유와 같은 의미를 상징적으로 내포하는 듯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자 ‘핑키 동남아’라는 표현은 더욱 모호해졌다. 핑자가 알고 있는 동남아를 ‘핑키’라는 말로 꾸며주기는 부적절했고 오히려 동남아가 ‘핑키’하지 않다는 인상이 강했기 때문이다.

‘핑키’라는 말은 책의 부제인 ‘사랑과 행복의 상징 두리안을 찾아 떠나는 힐링 로드’와도 그리 잘 어울리지 않았다. 문맥상 필자의 여정이 ‘힐링 로드’로 정의되고 그 여정인 동남아가 ‘핑키’하기 때문에, 양자를 합할 경우 필자가 ‘핑키함’에서 ‘힐링’을 찾았다는 말이 될 수 있다. ‘힐링’이라는 어휘가 풍기는 왜인지 모를 편안한 안빈낙도적 삶의 이미지와 ‘핑키함’ 사이에는 넘지 못할 간극이 있어 보였다.

책을 읽기 시작하자 ‘핑키’에 대한 궁금증이 곧바로 해결될 듯했다. 책의 도입부인 첫 장의 제목이 ‘핑키 지리학자, 동남아와 사랑에 빠지다’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 장에는 ‘핑키’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필자가 이 말을 그 의미가 자명한 것처럼 이용하는 듯했다. 아쉬웠다. 하지만, 책을 어느 정도 읽으면서 ‘핑키’에 대해 궁금해 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즈음 아쉬움을 해소할 단초를 찾았다. 태국의 주말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파트타임 상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필자가 “물건을 악착같이 많이 팔겠다는 부담감이 적은 상인들은 핑키하고 매력적인 시장 분위기를 연출한다”(171)고 적고 있기 때문이었다. 곧이어, 부화 직전의 오리 새끼가 들어있는 알을 삶은 필리핀 음식(발룻: balut)에 대한 설명에서 “발룻을 파는 장소는 핑키하고 필리핀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으며”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두 번 사용된 것만으로 ‘핑키’의

뜻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문맥상 ‘평키’는 기존의 태도나 일상적 모습과 차이나는 속성을 지칭하는 듯했다. 여기에 생각이 이르자 ‘평키 동남아’의 의미가 조금은 와 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국인의 눈에 동남아가 낙후된, 세련되지 못한 지역으로 주로 비추어져왔다면, ‘평키 동남아’는 지금까지 표상된 것과는 차별적인 성격을 가진 지역으로서의 동남아를 지시하는 듯했다.

이런 해석이 필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 ‘평키 동남아’를 ‘지금까지 표상되어온 이미지와는 차이나는 동남아’ 혹은 ‘새로운 시각에서 본(읽은) 동남아’라는 식의 진부한 표현으로 변환하여 이해하려는 필자의 시도 자체는 필자의 의도를 담아내지 못하는 ‘反평키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진부하게 이해했을지라도 역자가 ‘평키’라는 표현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지는 않을 것이다. 신선하고 파격적인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대중서라는, 즉 보다 넓은 대중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하려고 시도했다고 생각된다.

II.

이 책은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이어진 필자의 여정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 방문했던 장소, 맛보았던 음식, 들었던 이야기, 떠올랐던 생각과 느낌, 개인적 감상, 최근 뉴스, 역사적 설명,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해석 등이 글의 주를 구성한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을 소재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 논의될 만한 소재를 평이한 문체로 기술함으로써 이 책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독자에게 높은 가독성과 접근성을 보장해준다.

책을 접하자마자 그에 압도되었던 이유는 방대한 사진자료였다. 사진이 없는 페이지가 없을 정도로 본문 내용과 관련된 시각자료가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자료는 전문가의 사진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동남아에 접근하는 필자의 섬세한 시각, 미시적 삶에 대한 관심을 찾아볼 수 있었다. 동남아를 몇 차례 방문한 이후 촬영한 사진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했고 요즘 들어서는 촬영한 사진이 없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까지 그 상태가 악화된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처럼 다양하고 방대한 사진을 수집한 필자의 노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년간 동남아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초심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현지연구자로서의 부지런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책의 곳곳에는 여행 과정에서 필자가 우연히 만난 현지인의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다. 태국편을 예로 들면, 필자는 수상 시장에서 그곳의 발전에 공헌한 여사장을, 또 다른 시장에서는 타로점을 보는 아저씨를, 찐타부리 성당에서는 아버지 장례식에 온 여성을, 찐톤 레스토랑에서는 ‘훈남’ 사장을 즉흥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책에 제시된 사진 자료 중 상당수가 출연자의 동의 없이 쉽게 촬영될 수 없는 것임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자료들은 스스로없이 동남아 사람에게 접근하는 필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지역연구자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글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 있는 동남아에 대한 필자의 호기심과 관심, 동남아 연구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적극성과 열정의 근원은 어디일까? 그 이유는 필자에게 있어 동남아가 단순한 연구지나 연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듯했다. 필자에게 있어 동남아는 사랑과 행복의 상징 두리안이 두루 분포되어 있는 ‘행복 밀집 지역’으로서 치유를 가능케 하는 장소, 삶을 즐기며 살아가도록 하는 장소였다. 이처

럼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스스럼없이 동남아 사람을 만나 이야기했고, 틀에 박힌 계획 없이 물 흐르듯 동남아의 곳곳을 돌아다녔으며, 초심자적 호기심을 유지하면서 부지런하고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할 수 있었던 듯하다. 첫 대면 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구 대상이라는 도구적 목적지로 동남아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짐을 느끼는 필자로서는 이러한 필자의 모습이 신비하기까지 했다.

Ⅲ.

이 글에서 다루어지는 소재는 매우 광범위하며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소재를 포괄하기 위해 필자가 의존하는 주요 서술 방식은 ‘꼬리잡기식’ 글쓰기이다. 즉, 하나의 소재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와 연결된 또 다른 소재를 찾아내 글쓰기의 다음 대상으로 설정하거나 여정에 따라 접하는 대상을 차례로 글쓰기의 소재에 편입하는 방식에 기반하여 글이 전개된다. ‘꼬리잡기식’ 글쓰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필리핀 편의 일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필리핀을 소개하는 첫 소재로 필자는 지프니(jeepney)를 선택했다. 필자가 탔던 지프니 안에 있던 종교 상징물은 필자로 하여금 ‘운전사의 기도문’을 서술하도록 했고, 지프니와 같은 좁은 장소에서 서로 부대끼고 함께하는 필리핀 사람의 모습은 필자를 바랑가이(barangay)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인도했다. 필리핀 문화의 핵으로 규정된 바랑가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필자는 필리핀 사회의 운영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인 피에스타로 화제를 옮기며, 이어 등장한 피에스타 음식에 대한 설명은 발룻(balut)이라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도록 한다. 발룻에 대한 설명이 끝날 무렵 필자는 바랑가이 문화로 다시 돌아가 집단간 라이벌 의식을 설명하며, 이런 경향에서 벗어난 국민 영웅 호세 리잘(Jose Risal)을 떠올린다. 리잘에 대한 설명은 리잘 공원으로 이어지고, 그곳에서 만났던 남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여성과 건강 상담을 해주는 간호사 이야기가 제시된다. 간호사가 과거 외국에서 일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소재는 필리핀 사람의 해외 취업으로 옮겨지며, 이는 필리핀 사회의 빈부격차와 구조적 모순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게 한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은 필리핀 편의 사분의 일 정도에 해당할 뿐이지만, 이것만으로도 다양한 소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등장하고 있음을 예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인지, 글에서 간간히 나타나는 ‘한편’이라는 표현(예를 들면 93, 157, 255)은 글 읽는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잡을 꼬리가 없어져서 새로운 꼬리로 글을 시작하려 할 때 무의식적으로 사용했던 표현 같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꼬리잡기식’ 글쓰기는 하나의 문단 내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 그 전형적 사례로 기록한 것이 아래의 인용문이다(387-8):

지나간 옛사랑의 추억에 눈물짓거나 짝사랑에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현재 내 옆에 있는 이성에게 집중하는 것이 대다수 인도네시아인들의 특성이다. 농지가 지력을 다해 수확량이 줄면 새로운 땅을 찾아 미련 없이 떠나는 화전민의 DNA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실제로 자바섬을 제외한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섬들은 그리 비옥하지 않아 화전 농업을 하거나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카사바, 땅콩 등 뿌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동남아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도 화전이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던 필자는 그것이 화전민의 이주 양태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음을 떠올리게 되었고, 곧이어 화전 농업으로,

나아가 화전지역의 화재로 물 흐르듯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적인 서술 방식인 ‘꼬리잡기식’ 글쓰기는 사회과학적 혹은 학술적 글쓰기에서 그리 선호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 표현 역시 유사한 상황에서 출현했는데, 평자가 대학원생 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 서술상·분석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처음 사용했고 지금까지도 애용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이러한 글쓰기 양식을 고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음식과 관련된 내용은 음식과 관련된 내용끼리,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끼리 묶어 설명하고, 쉽게 묶여지지 않는 이야기는 각주에 넣거나 배제해 버린 채 글을 쓰고 싶은 욕구를 억누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추측이지만 평자는 그 이유를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 듯한 필자의 모습에서 찾고 싶다. 즉, 부지런하며 열정적이고 호기심 많은 조사자로서 필자는 동남아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 거리와 보여줄 거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이런 필자에게 있어 학술적 글쓰기 방식은 많은 제약을 가진 것으로 비추어졌을 듯하다. 그 결과 ‘꼬리잡기식’ 글쓰기가 선택되었고, 이를 통해 필자는 말하고 싶은 것 대다수를 자연스럽게 책에 담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의 글쓰기 방식 역시 ‘평키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 생각된다.

IV.

‘꼬리잡기식’ 글쓰기 방식이 이용되었기 때문인지 글 중간 중간에는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포함되어 있다. 글 중간에 갑자기 오세훈 前서울시장이 출현하기도 하고(49), 검찰 총장과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거론되기도 하며(149 & 154), 한국의 유기견과 ‘올드 미

스'가 나타나기도 한다(179 & 249). 글의 서술 방식을 고려해보면, 한국의 이야기가 포함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타 문화를 돌아다니며 꼬리에 꼬리를 물며 다가오는 느낌이나 생각에 자기 문화에서의 삶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책에 제시된 한국의 모습 중 가장 압도적인 내용은 필자를 둘러싼 남성중심적 마초 문화와 관련된다. 동남아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필자는 한국에서 “워킹 맘으로 살아가며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149), “피곤한 ... 삶이 너무 슬퍼 한숨[지어어]” 하는 상황(89)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이는 글을 이끌어가는 ‘꼬리’의 하나로 기능한다. 하지만, 필자는 한국의 우울한 상황을 운명론적으로만 받아드리지 않으며 동남아에서 만난 현실을 통해 그 변화 가능성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때로 선동적인 논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본문 마지막 문단은 이를 요약적으로 예시한다(425).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고생하고,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며 지쳐 있던 한국 이줌마에게 미낭카바우 여성들의 삶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자유롭고 당당한 미낭카바우 여성들을 만나면서 또 빠당 음식과 두리안을 먹으며 행복과 희망을 충전할 수 있었던 치유의 시간이었다. 마초로 가득한 한국 사회에서 40년간 살면서 다 고갈된 삶의 에너지를 채우는 한국 여성들이여! 고단한 일상에 지쳐 위로와 희망이 절실할 때는, 두리안이 풍부한 행복 밀집 지역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를 상상하자. 맛있는 빠당 음식을 창조해 낸 미낭카바우 여성들의 빛나는 승리를 기억하자.

필자의 자유로운 감정 이입은 책의 부제에 ‘힐링 로드’가 삽입된 이유를 실감하도록 한다. 필자의 여정은 동남아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힘들고 고단한 상황에 찌든 자신을 ‘힐링’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동남아에서 접하

는 신선하고 즐거운 희망찬 모습은 이를 가능하게 만든 요소였다.

타문화에서 객관적 관찰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의 문제는 인류학, 나아가 사회과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문제이다. 그에 대한 합의된 결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해답이 존재할 수 있을지 역시 확실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역연구자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경향과 비교할 때 필자의 접근법은 혁신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필자의 감정적 상태나 주관적 평가가 글을 이끌어가는 핵심 요소이며 현실을 바라보는 핵심 렌즈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일 수 있다고 믿거나 확신하는 혹은 객관적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진부한 수사에서 벗어나 필자는 글쓰기의 당파성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 글이 ‘평키적’인 또 다른 이유이다. 감정의 개입을 두려워하거나 이를 애써 외면하기보다는 주변을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연구자의 느낌과 감정을 심분 활용하는 모습은 기존의 학문적 작업과는 대비되는 ‘평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V.

중립적 관찰자로서의 입장을 포기함으로써 필자는 주변에서 전개되는 모습을 자유롭게 이해하고 확신있게 설명할 자유를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용된 가장 중요한 방법론적 도구는 인상(impression)으로서, 필자는 현실을 인상과 화가의 붓처럼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인상주의적’ 렌즈를 통해 동남아 도서부 국가의 사회문화적 현상은 새로운 해석의 대상으로 거듭나는데, 예를 들

자면 발리에서의 테러, 자카르타에서의 화인에 대한 집단 강간 등에도 불구하고(346-7) 인도네시아는 ‘다문화를 실현하는 선진국’으로 태어난다. 인도네시아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평자에게 선진국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인도네시아는 상상해보지 못한 개념이지만, 갑자기 떠오른 ‘핑키’라는 표현은 그 생경함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핑키 인도네시아’는 ‘핑키’하지 못한 평자가 그려온 인도네시아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책에 제시된 ‘핑키 동남아’의 모습을 각국 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 사람은 “서구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세계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끊임없이 배우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완벽해질 때까지 연습”하는(34) 사람이며, 싱가포르 학생은 “모두 완벽한 모델생들”로서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거나 떠드는 학생이 전혀 없[을]” 정도이다(37). 태국 사람은 “외국인에게 친절하지만 비굴하게 아부하지 않으며 자부심을 지키는” 국민이고(133), 태국은 여성이 “사생활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 “진짜 여성이 행복한 국가이다”(146). 필리핀은 “여성, 성적 소수자, 정신질환자, 장애인을 배려하고 따듯하게 품어주는”(284) 국가로서 한국보다 “훨씬 더 성숙한 민주 사회”(284)이며, 필리핀 사회는 “각 개인이 자신의 꿈을 창의적으로 실현하는 다양한 개성을 표현하도록 장려하는”(284) 곳이다. 인도네시아 여성은 “여러 번 결혼해도 능력있고 매력적[으로]”(377) 비추어질 수 있는 마돈나 뺨치는 존재이고, 인도네시아 사람에게는 “괜히 고상한 척하며 품 잡는 위선이 거의 없다”(387).

필자의 ‘인상주의적’ 설명은 방문 국가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접한 상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 결과, 우리는 말레이시아의 두리안 뷔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국가 보안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두 즐거운 대화만 나누고 있었고 ... 인종, 나이, 성별, 종교,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행복해 보[임]”(85)을 알게 되며, 남성들이 “수줍은 듯이 도리도리 춤을 추고 있으며 여성들은 귀엽다는 듯이 이들의 춤을 구경하며 ... 술과 음료를 마시[는]”(371-2) 자카르타의 나이트클럽에서 인도네시아의 남녀 관계와 성역할이 우리와 전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때로, 저자의 직관적 설명은 동남아 사람을 뛰어넘어 동남아의 동물에까지 확대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미낭카바우 족의 농촌에서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모두 행복[하]다[는]”(409) 사실을 알게 된다.

동남아에 대한 필자의 ‘인상주의적’ 설명을 읽는 도중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떠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이 책에 적용하기에는 석연치 않음이 있었는데, 동남아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었다. 앞서 지적한대로, 필자의 설명을 거치며 인도네시아는 다문화 선진국으로,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성숙한 민주 사회로 표상된다. 이는 현실의 단면을 단순화하여 일반화한 오리엔탈리즘적 설명일 수 있지만, 이슬람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진술과는 대조적이다. 필자의 렌즈를 통해 동남아와 관련된 대다수의 것들은 긍정적인 성격을 부여받게 되며, 동남아 자체는 ‘행복 밀집 지역’으로 형상화된다.

동남아에 대한 필자의 ‘평키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이 지역에 대한 필자의 무한한 애정인 듯하다. 이와 같은 태도를 다른 동남아 연구자들에게서 찾아본 적이 거의 없는 평자로서는 필자가 가진 동남아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에 놀라움과 감탄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VI.

책을 읽기 전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이 책을 동남아 관련 수업 교재로 이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였고 풍부한 사진 자료는 그에 대한 기대를 한껏 고양시켰다. 하지만, 글을 읽으며 기대는 조금씩 사라져갔다. 매우 다양한 소재가 소개되었기에 그와 관련된 충분하고 균형 잡힌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같은 소재가 반복되어 출현할지라도 여기저기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만을 연결시켜 읽는 작업이 쉬워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필자의 자유로운 감정 표현과 이입, 당파적인 현실 인식 그리고 ‘꼬리잡기식’ 글쓰기 등은 강의를 통해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균형있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평자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책의 흐름을 쫓아 다양한 소재를 자유롭게 아우르며 그와 대비되는 관점과 사실을 첨가하며 강의하기에는 평자의 ‘내공’이 모자랐다.

동남아 관련 강의 교재라는 역할이 이 책의 집필 의도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반면 이 책이 대중적 교양서로 집필되었으리라는 점은 거의 확실한데, 작년에 출판된 평자의 책 『적도를 달리는 남자』와 같은 시리즈물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인문한국 사업단에 의해 기획되었기 때문이다. 평자의 책은 ‘서강동연 HK교양총서’의 첫 번째 출판물이었고, 이 책은 두 번째 출판물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대중적 교양서로서 이 책이 가진 장점은 무엇일까?

대중적 교양서라는 말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고 대중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성격의 글을 지칭하는 듯하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이 책에서는 대중적 교양서로서의 장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평키’한 성향의 독자,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필자와 같은 상황에 놓인 독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독자들에게 있어 ‘평키한’ 필자의 설명

은 보다 쉽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카타르시스적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평이하고 물 흐르는 듯한 서술 방식과 문체 역시 이들 독자가 계속 글을 읽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듯하다. 글에 포함된 다양한 소재 역시 독자의 관심을 보다 용이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일상적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독자는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궁금해했던 내용 혹은 동남아에서 자신이 직접 접했던 상황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책을 읽을 동기를 유발해 줄 것이다. 이처럼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내기에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일회적 수준의 관심을 보다 지속적인, 나아가 학문적인 관심으로 이끌어내는 데에는 내용상 분석상의 제약이 있다. 따라서 여러 국가가 아닌 하나의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 같은 종류의 글이 쓰일 수 있다면 이는 보다 균형적이고 다차원적인 현실 분석을 자연스럽게 포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이 책이 가진 대중서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동남아에 대한 학문적 관심 확대에도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